

김종삼 시의 '여백' 형성에 관한 인지시학적 연구

신지원(전북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동사, 주어에 관한 주의 선택과
프로파일링에 의한 '여백'의 형성 |
| 2. 주의 선택과 전경/배경의 순환적
전복에 의한 '여백'의 형성 | 4. 결론 |

1. 서론

이 글은 김종삼 시에 드러난 '여백'에 대하여 인지시학의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려는 목적이 있다. 김종삼 시를 '여백'이라는 자장 안에서 논의한 연구는 그간 상당히 축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시의 형식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논의¹⁾에서 시작하여, 여백에 대한 의미적 측면의 연구²⁾까지 논의가 확대되고

1) 김현은 “그의 유년시절을 주로 회상하고 있는 그의 초기 시편들이나 그가 성인이 되어 겪게 된 비극적인 체험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의 후기 시편들이나, 그것들은 다 같이 절제라는 미덕을 갖고 있다.”(김현, 『김종삼을 찾아서』,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237쪽.)고 하면서 “그의 시야말로 단일적인 해석을 부인하게 하는 암시력을 그 구체성 뒤에 숨겨가고 있기 때문이다.”(김현, 『김종삼을 찾아서』,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243쪽.)고 설명했다. 황동규는 “김종삼의 시는 반성을 거부한다. 거의 변함없이 30년 가까이 우리 곁에 있어 왔으면서도 그의 작품이 주는 이해와 감동이 늘 그만하게 남아 있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을 극도로 삼가는 그의 성격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도 그의 시가 여백의 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황동규, 『잔상의 미학』,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244쪽.)라고 설명하여 김종삼 시의 '여백'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또한 김종삼 시의 형식적 측면에 대해,

있는 추세이다. 한편, 김종삼의 시 세계를 ‘부정의 세계’나 ‘평화의 시학’ 등으로 규정하는 논의에서도, 김종삼 시의 바탕에 여백이 놓여있음을 인정하고 있다.³⁾ 또 김종삼 시의 특질이 음악이나 회화와 같은 다른 예술의 영향 아래에 있음을 피력한 연구에서도, 그 근간에 대체로 ‘절제’와 ‘공백’, ‘생략’ 등이 있음을 전제⁴⁾하고 있다.

“그가 노리는 것이 잔상효과이기 때문이다. 언어습관이나 일상생활면으로 보면 꼭 있어야 할 것을 꼭 있을 자리에서 빼버리고 그 빈자리에 앞서 나온 시행들의 울림을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감각의 관성을 이용한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그는 이 관성의 특징을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후, 다른 연구자의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승희는 김종삼의 시 텍스트를 미니멀리즘 시학으로 상정하면서 “미니멀리즘 시학이 추구하는 기본 원칙은 ‘최소의 표현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고 절제된 언어로 언어의 응축 내지 여백을 통해 의미의 불확정성의 확대와 심미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김승희, 『김종삼 시의 전위성과 미니멀리즘 시학 연구』, 『비교한국학』16,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197쪽)고 설명한다.

- 2) 김성조는 김종삼 시의 여백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의미적 차원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김종삼의 ‘공백/생략’은 단순한 미학을 넘어 시인의 현실인식과 자아인식, 자아 극복의 과정이 암시적으로 구조화”(김성조, 『김종삼 시의 ‘공백/생략’에 나타난 의미적 불확실성과 도피성』, 『한국언어문화』53, 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81-82쪽.)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맥락에서의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김영미는 김종삼 시의 근저에 “전쟁으로 비롯된 세계에 대한 공포”(김영미, 『여백의 역설적 발언』, 『국제어문』57, 국제어문학회, 2013, 9쪽.)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여백으로 구체화되어 드러나는 침묵의 세계에 대해 논의한다.

- 3) 이경수는 김종삼의 시 정신을 ‘부정의 시학’으로 설명하면서 “김종삼 씨의 시세계가 그 자체로 완결된 세계가 아니라 여백을 남겨 둔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여기에 있다. 그리하여 그의 시는 늘 추상을 기웃거리면서도 그것의 우월성을 딱부러지게 못박아 놓지 않는다. 어쩌다가 그네를 밀어 올려 높이 다다른 곳에 대해 언급할 때도 그는 늘 완결되지 않은 구문으로 우물거려거나 여백을 남겨 놓는다.”(이경수, 『부정의 시학』,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266쪽)고 하며 그 바탕에 여백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승훈 또한 “그의 기법에서 읽을 수 있는 묘사성이나 여백성은 현실의 덧없음을 견디는 한 가지 방법일 것이며, 좀더 부연하면 그것은 현실의 고통을 견디는 허무주의자의 유일한 삶의 방식일 터이다.”(이승훈, 『평화의 시학』,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320쪽.)라고 하며 김종삼 시의 기법적 특질을 여백으로 보고 있다.

김정현은 김종삼 시의 형식적, 내용적 공간을 ‘누미노제’로 보면서도 그의 시를 “여백과 침묵이 충만한 텍스트”(김정현, 『김종삼 시의 형상화 양상 연구』, 『국제어문』60, 국제어문학회, 2014, 73쪽.)라고 말하면서 누미노제를 형상화하는 기제 중 하나로 보고 있다.

- 4) 서영희는 김종삼 시에 나타난 음악적 공간을 통해 절제와 울림, 환상성 등을 연구하면서 “김종삼은 극도로 생략된 언어를 통해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분위기를 드러냈다”(서영희, 『김종삼 시의 형식과 음악적 공간 연구』, 『어문론총』53,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 398쪽.)고 설명했다.

류순태는 김종삼 시인이 “‘인상파’에서 중시되었던 ‘잔상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매우 독특하면서도 난해한 작품들을 창작했다.”(류순태, 『김종삼 시에 나타난 현대미술의 영향 연구』, 『국어교육』125, 한국어교육학회, 2008, 521쪽.)고 하면서 잔상 효과는 다름 아닌 생략과 비약에 의한 울림이라고 설명한다.

여러 논자들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설정한 ‘절제’, ‘생략’, ‘공백’, ‘암시’ 등의 언표는, 논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범박하게 ‘여백’의 범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시인들에 비해 김종삼 시인의 연구에서 여백이 유독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백이 김종삼의 시 세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백’이 김종삼 시의 미학적 특질을 규명하는 기제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김종삼 시의 미학적 특질 중 하나를 ‘여백’으로 놓고, 이 여백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김종삼 시의 ‘여백’을 언급하는 기존의 논의들은 여백 자체가 하나의 기법으로 작용한다거나, 여백의 자리에 어떠한 시정신이 채워지고 있다는 식의 분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 글은 그러한 분석에 앞서, 김종삼 시의 시정신을 구현하는 기법으로서의 여백 자체에 관심을 둔다. 즉, 시를 읽는 과정에서 여백이 어떠한 방식으로 포착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시 읽기 과정이 결국은 이해와 의미형성의 과정을 확인하고, 김종삼 시의 여백을 의미화하는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입장은 작가, 텍스트, 독자라는 문학 비평의 큰 축에서,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고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 입각해 있다. 이 때에 인지시학은 이 글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인지시학 분석 목적은 어떻게 그 독자가 그러한 해석에 도달했는지를 합리화하고 설명하는 일”⁵⁾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지시학은 “경험주의 문학 연구 형태의 수용미학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학에 나타난 언어의 의미가 어떻게 재현되고, 언어가 인간 본연의 마음과 인위적인 마음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직화 되는지를 탐구”⁶⁾하기 때문이다. 김종삼의 시를 읽을 때, 독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인지과정을 거쳐 여백을 획득하는지를 우선적으로 밝혀야, 그 여백이 가지는 특질과 가치에 대한 후속 논의 또한 비

박민규는 김종삼의 시들에 나타난 “대상의 과감한 생략과 요약, 원근법의 배제”(박민규, 『김종삼 시에 나타난 추상미술의 영향』, 『어문논집』59, 민족어문학회, 2009, 397쪽.) 등이 추상미술의 기법을 수용한 결과임을 주장한다.

5) 피터 스톱웰, 이정화·서소아 역,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27쪽.

6) 양병호, 『이성선 시의 인지시학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43,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4, 113쪽.

로소 내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지시학의 여러 수단 중에서 ‘주의(attention)’와 ‘전경(figure)’, ‘배경(ground)’, ‘프로파일링(profiling)’ 등을 주로 원용할 것이다. 인지시학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김종삼 시의 여백이 형성되는 과정을, 대표적인 작품을 정치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이해해 볼 것이다. 인지시학과 관련된 개념은 각 장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설명될 것이다.

2. 주의 선택과 전경/배경의 순환적 전복에 의한 ‘여백’의 형성

전통적인 관점에서 여백은 예술의 미학적 개념이 된다. 시문학에서의 여백은 “이미 시 창작의 근원적 전제로 여백을 상정하던 시조와 같은 단형시에서 비롯되었다.”⁷⁾ 손민달은, 여백을 기법으로 인식하고 그 의의를 규명하는 작업을 문덕수의 논의⁸⁾에서 이끌어 내면서 “시의 외형과 생략, 혹은 내용이라는 기준”⁹⁾으로 여백을 분류하고 있다. 특히 여백의 기능적 차원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이 글이 주목하는 바와 일치한다.

여백은 독자와의 대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중략) 언어로 표현된 시행보다 독자의 기대지평을 더 많이 확보하는 공간이 된다. 이 열린 공간을 통해 견인되는 독자의 능동적 참여는 시인과 독자가 서로 대화하는 자리이며 이를 통해 독자의 시적 감수성은 더욱 고양될 수 있다.¹⁰⁾

여백에 관한 이러한 관점은 인지시학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같다. 이 장에서는 인지시학의 주요 이론의 하나인 ‘주의’ 연구를 통해 여백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김종삼의 시편 중 여백의 미로 꼽히는 작품을 들어 실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의 연구에 관한 이론적 개념¹¹⁾

7) 손민달, 『여백의 시학을 위하여』, 『한민족어문학』48, 한민족어문학회, 2006, 264쪽.

8) 문덕수, 『여백의 시학』, 『시문학』, 시문학사, 1995.6.

9) 손민달, 위의 논문, 266쪽.

10) 위의 논문, 268쪽.

을 살펴보겠다.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역동적인 체험으로, 전경과 배경 사이의 관계를 창조해내어 그에 따르는 주의를 새롭게 하는 과정과 연관된다. 주의를 선택적이다. 시야의 어떤 요소는 주의를 받기 위해 선택되며, 이것은 전형적으로 전경의 요소가 될 것이다. 시야의 배경은 선택에서 해체되거나 방치(neglect)된 채로 특징짓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한 순간에 무엇을 주목하던지간에, 그것은 보는 사람 혹은 독자의 모든 관심과 정보 처리의 초점을 받게 될 것이다. 주의를 받은 전경과 예전의 경험에 기초한 모든 기대는 전경의 활동을 따라가기 위해 암시를 받고 준비가 될 것이다.

문학 텍스트는 텍스트 공간 내에서 특정 자질에 주의를 초점을 두기 위해 문체 패턴을 사용한다. 이 패턴의 정확한 본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의를 문체적 흥미의 지속적 갱신과 전경 배경 관계를 갱신하는 끊임없는 과정에 의해서만 유지될 것이다. 사실상 정지된 채로 남아있는 요소는 급속히 주의를 잃게 된다. 텍스트 용어로, 이것은 ‘새로움’이 주의를 얻는 비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문학이란 주의를 하나의 요소에서 떼어내어 새롭게 제시된 요소로 주의를 이끌어 옮기는 주의산만인 것이다. 이러한 사물이나 장치를 ‘유인자(attractor)’라고 명명한다.

주의는 어떤 사물에 초점을 준다. 주의는 그 사물이 움직이면, 즉 그 텍스트가 전개됨에 따라 그것을 따라간다. 우리의 인지 능력이 이미 원래 위치에 대한 정보의 값을 매기고 새로운 자극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는 그 원래의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주의를 문장의 화제 자리에 제시된 사물 혹은 초점이나, 강조, 초점화 혹은 관점을 가진 사물에 둔다. 따라서 주의는 어느 사물이 가장 흥미로운가에 따라 움직인다. 텍스트상에서 그것은 가장 많은 초점 속에 놓여있거나, 그것에 할당된 텍스트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가장 눈에 띄게 이상한 낱말이나 구로 표현된 것이다.

11) 주의 연구에 관한 개괄은 피터 스톡웰, 이정화·서소아 역, 앞의 책, 35~56쪽. 제라드 스티븐·조안나 개빈스 엮음, 양병호·김혜원·신현미·정유미 역, 『인지시학의 실제비평』, 한국문화사, 2014, 21~47쪽과 100~123쪽. 이정모 외 16인 공저, 『인지심리학』(3판), 학지사, 2012, 137~164쪽. Elena Semino·Jonathan V. Culpeper(EDT), *Cognitive stylistics: Language and cognition in text analysis*, John Benjamins, 2002, pp.279~318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우리는 새로운 자질에 주의 초점을 두기 위해서 잉여성이 있는 곳, 다시 말해 요소가 진부하고 예상되는 곳의 자질을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사회적·문화적 경험의 일부로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어떤 패턴에 더 특권을 준다고 배웠다. 스트루프의 실험¹²⁾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주의를 고의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새로운 해석을 생산해 내기도 한다.

이제 이를 토대로 하여 김종삼의 시에서 여백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겠다.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가난한 아희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어린 羊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
진눈깨비처럼

- 「복치는 소년」

「복치는 소년」은 김종삼의 시에 나타난 여백의 미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작품은 황동규의 논의 이후로 생략과 압축, 여백과 공백을 설명하는 대표작으로 꼽혀 왔다. 특히 ‘-처럼’에 대한 원관념이 부재하는 구문론적 구조와 ‘내용 없는’이라는 시어가 불러일으키는 공백성 때문에 이 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처럼’에 제목을 붙여 시 전체의 의미를 고찰¹³⁾하기도 했고, 시에 기저한 정신을 ‘무염성’¹⁴⁾으로 읽어 내기도 했다.

이 시의 불안정성은 주지했듯이 비유의 원관념이 부재하는 시적 상황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의미망의 함정을 드러낸다. ‘처럼’을 종결할

12) 이 실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노랑’이라는 색깔의 이름을 파란색 잉크로 써 놓고 피실험자에게 그 단어를 읽도록 하면 잉크의 색과는 무관하게 ‘노랑’이라고 읽는다는 것이다. 이는 그 낱말의 처리가 잉크의 색깔보다 더 주의선택을 받기 때문이다.

13) 황동규, 앞의 논문, 249~250쪽.

14) 권명옥, 「적막의 미학」, 『한국문예비평연구』1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4, 12쪽.

명사, 그러니까 안정된 형태와 기의를 가진 기표를 찾지 못하면 이 모든 구문은 불안을 표출할 뿐이다.”¹⁵⁾ 이러한 이유로 독자는 원관념을 시 내부에서는 끝내 찾지 못하고 불안의 상태에서 시 읽기를 일단 마무리하게 된다. 이것이 이 시가 여백을 불러일으키는 일차적인 근거이다. 사실 이때는 여백의미를 감지한다기보다는 시의 완전한 의미를 찾지 못한 일종의 여운을 느낀다고 해야 더 적절할 것이다.

독자가 이 시를 처음 읽을 때 주의 선택은 ‘-처럼’에 대한 의미 찾기에 놓여진다. 독자가 그간 체득한 비유에 관한 지식은 독자로 하여금 근원영역을 파악하도록 종용하는데, 이는 인지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 근원영역을 포착하기 위한 시적 정보는 터무니없이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독자의 주의 선택은 다시 다른 시어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주의 선택과 관련하여 ‘전경’과 ‘배경’이라는 형태심리학의 개념을 취할 필요가 있다.

배경으로부터 전경을 구별하는 인간의 인지 메커니즘은 주의가 작동되는 방법, 범주화와 경계화가 작동되는 방법, 그리고 시각적, 공간적 교섭에 관한 인지능력이 언어 영역으로 확장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전경은 배경으로부터 분리되는 아주 명확한 경계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대상 또는 자질로 간주된다. 최근의 주의 이론에서는 이런 특성을 시각영역에서 텍스트영역으로 확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자질들을 추가해 왔다. 1)전경은 나머지 영역에 비해 더 상세화되고, 더 초점화되고, 더 밝고, 더 매력적이다. 2)전경은 나머지 영역의 위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급도가 더 많거나, 더 크다. 그리고 그 정경은 나중에 배경이 된다. 3)전경은 정적인 배경에 비해 동적이다. 4)전경은 시간이나 공간 면에서 배경에 선행한다. 5)전경은 배경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이거나, 아니면 숨어 있던 것이 전경이 되기 위해 드러난 것이다.¹⁶⁾

독자는 이제 ‘-처럼’의 원관념을 찾는 것에서 다른 시어에 주의를 갖는다. 먼저 각 연이 비슷한 통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파악한다. 이 때, 범주화에 관한 ‘가족적 유사성’¹⁷⁾이라는 인지 기제가 관여하고, 때문에 독자들은

15) 김정현, 앞의 논문, 76쪽.

16) 제라드 스티븐·조안나 개빈스 엮음, 양병호·김혜원·신현미·정유미 역, 앞의 책, 24~25쪽.

17) 가족적 유사성에 대한 개념은 양병호, 『한국 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 27쪽

‘아름다움’과 ‘크리스마스 카드’와 ‘진눈깨비’를 하나의 범주로 처리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시어들이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인식한다. 동시에 이 세 시어는 시에서 강력한 전경으로 부각된다.

그런데 이 시어들을 한정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의 범주로 처리된 세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구절들로 인지된다. 그래서 각 연의 전경이었던 세 시어들은 점차 인지적으로 방치(neglect)되고 이를 한정하는 ‘내용 없는’과 ‘가난한 아희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과 ‘어린 양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이 새로운 전경으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특히 ‘오다’와 ‘반짝이다’의 시어는 위에서 제시한 전경의 자질 중 3)에 해당하여 좀더 현저성을 띤다.

독자는 동사 ‘오다’와 ‘반짝이다’를 이해할 때, 이들 동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주어에 다시 주목하게 된다. ‘누가/무엇이’에 해당하는 주어는 다름 아닌, 처음 전경이었던 ‘크리스마스 카드’와 ‘진눈깨비’이다. 전경과 배경의 전복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한 채 순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순환의 고리가 반복될수록 독자는 비로소 의미의 여백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제목인 ‘북치는 소년’은 크리스마스라는 공통 요소 외엔 의미적 연결 고리를 찾기가 힘든 정보이다. 독자는 전경/배경이 순환하며 전복되는 과정을 통해 여백을 느끼게 되고, 북치는 소년이라는 캐럴의 소리이미지와 크리스마스가 불러일으키는 정서를 여백에 채우게 된다. 결국 독자는 이 시에서 인지된 이미지와 정서를 통해 시적 의미를 획득해야 한다. 이 시가 논자들에 의해 다양한 독법으로 이해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전경/배경이 순환적으로 전복되는 경우는 다른 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생일』에서는 ‘지나면서’, ‘보면서’가 전경으로 부각되었다가, ‘갔다’에 의해 인지적으로 방치된다. 그러나 바로 다음 연에서 ‘보면서’와 ‘지나’가 전경이 되면서 1, 2연의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꿈 속의 나라』에서도 전경이 ‘나도향, 한하운, 프로이트, 말러’에서 ‘주고받다, 부서지다, 바뀌어지다’로 옮겨가고 있다. 되풀이 되는 시어인 ‘한 귀퉁이’와 ‘꿈속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배경이 되는데 이 배경에서 전경이 반복적으로 순환된다.

을 참조함.

3. 동사, 주어에 관한 주의 선택과 프로파일링에 의한 ‘여백’의 형성

인지시학적 관점에서 동사와 주어에 관한 주의 선택은 독자가 문학작품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주어는 통사 내부에서 “원형적으로 동작주(agent)의 역할”¹⁸⁾을 한다. 독자들은 “전형적으로 감정이입의 척도를 가지고 있어서 화자는 보통 발화하는 주어이기를 기대한다. 만약 주어가 화자가 아니라면 청자이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인간이 주어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인간이 아니라면 동물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물리적 사물 또는 심지어 추상적 개체마저도 주어처럼 행동할 수 있다.”¹⁹⁾ 이를 피터 스톡웰은 “주체의 화제성”²⁰⁾이라고 이르는데, 이 주어의 화제성에 따라 독자의 주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 「墨畫」

「묵화」의 통사적 구조에서 주어의 화제성은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다. 시의 화자 역시 직접 등장하고 있지 않다. 1행과 2행에 이르는 첫 문장에서 의미적 전경으로 부각되는 것은 ‘물 먹는 소’이다. 왜냐하면 통사 구조의 배열에서, 보통 주어의 자리라고 인식되어 있는 첫 구절에 ‘물 먹는 소’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동사인 ‘얹혀졌다’의 수동적 감각 때문이다. 능동형의 ‘없었다’를 의도적으로 피동형으로 제시하여 할머니의 행위보다는 소의 행위에 주의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18) 피터 스톡웰, 이정화·서소아 역, 앞의 책, 114쪽.

19) 같은 책, 같은 쪽.

20) 같은 책, 같은 쪽.

독자는 이 지점에서 인간이 아닌 동물이 전경으로 부각되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인간을 배경으로 방치하게 된다. 그리고 물을 먹는 소의 행위를 통해 하루의 일과에 관한 이야기를 짐작하게 된다. 그러면서 다음 행에 그 이야기에 대한 정보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후 네 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적정보는 ‘하루’의 이야기라는 것과 고된 일을 마쳤다는 정도이다. 여기에서 독자는 첫 번째 여백을 감지하게 된다. 이것은 기대하고 있던 이야기 혹은 서사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서사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뚜렷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동작주로 부각된 소와 피동형의 동사는 독자의 주의를 특별한 이야기로 끌어놓고 있는데, 이야기의 내용은 이 시에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어지는 네 행의 동작주는 할머니로 인지되고 할머니가 소에게 했음직한 말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직접 발화로 처리하지 않고 등장하지 않는 외부의 화자에 의해 간접화하고 있다. 즉 “화자의 미등장으로 인해 풍경을 간접화시키고, 묵화의 특성인 번짐의 미학을 통해 이미지의 확장을 시도”²¹⁾하는 것이다. 이 때 독자는 할머니의 보이스를 다른, 보이지 않는 화자를 통해 우회해서 듣게 된다. 기대했던 이야기의 내용이 펼쳐지는 것도 아닌데 시적진술 또한 직접 듣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는 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두 단계 이상을 거쳐서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묵화』의 여백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증폭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묵화』는 여백을 (중략) <공백>과 <반복된 음가의 공허함>, <어둠의 이미지>로 반복해서 보여”²²⁾주는 것이다. 덧붙여 “섬표는 다음에 도해할 어떤 미래의 구문을 예상하게 하는 기호”²³⁾로 기능한다.

미구에 이른 아침
하늘을 파헤치는
스콥 소리

21) 최명표, 『김중삼 시 연구』, 『한국언어문학』49, 한국언어학회, 2002, 13쪽.

22) 김정현, 앞의 논문, 74쪽.

23) 같은 논문, 같은 쪽.

하늘 속
맑은
변두리
새 소리 하나
물방울 소리 하나

마음 한 줄기 비추이는
라산스카

- 『라산스카』(수록2)

김중삼의 시에는 유난히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인지시학에서 동사의 선택은 그 동사가 불러일으키는 낱말의 참여 역할 때문에 시의 분위기나 미적·의미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비슷한 상황을 드러낼 때 어떤 동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시인의 관점이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도질하다’나 ‘흠치다’ 같은 동사에는 가해자, 피해자, 물건이 의미론적 참여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강도질하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흠치다’는 보통 가해자와 물건이 주의 선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참여 역할이 의미론적으로 불러일으켜지는 그 메커니즘을 인지시학에서는 ‘프로파일링’²⁴⁾이라고 말한다.

위에 인용된 『라산스카』에서는 단 세 개의 동사만이 사용되었다. 각각 ‘이르다’, ‘파헤치다’, ‘비추이다’가 그것이다. 먼저 ‘이르다’는 장소(어디에)와 시간(언제)이 참여역할로 프로파일되는 동사이다. 그런데 시에서는 ‘미구에’라는 시간 정보만이 제시되어 있다. 게다가 의미상, 이르는 주체가 ‘아침’으로 설정되어 있다. 아침이 시적 동작주로서 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전경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존재론적 은유의 측면에서 시의 의미를 구축할 수 있겠으나, 아침은 시 전체의 배경으로 기능할 뿐이다. 다음 행에서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가늠할 수는 있지만 독자는 첫 행에서부터 의미파악에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덧붙여 ‘이른’을 시간적으로 빠르다는 뜻으로 볼 경우는 더욱 그렇다.

24) 프로파일링에 대한 설명은 제라드 스티븐·조안나 개빈스 엠크, 양병호·김혜원·신현미·정유미 역, 앞의 책, 107~118쪽을 참조.

‘미구’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 볼 때, 의미가 더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파헤치다’는 대상과 그 대상 속의 내용물이 프로파일되는 동사이다. 시에서는 일단 대상이 제시되어 있다. ‘하늘’이 그것인데, 여기서 오히려 전경으로 주의선택을 받는 것은 ‘스콥 소리’이다. 하늘의 내용물은 시 전체를 여러 번 읽고 나서야 파악할 수 있다. 내용물이 프로파일되기 이전에는 파헤치는 과정을 형상화한 소리이미지(스콥 소리)가 강력한 전경으로 부각된다. 세 행으로 되어있는 첫 연은 형태적 규모와는 반비례로 매우 복잡한 인지구조를 갖고 있다. 독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적 규모 차원의 여백을 감지하게 된다.

두 번째 연에서는 ‘파헤치다’의 참여역할로 프로파일되는 내용물이 등장한다. 대체로 소리이미지의 시어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연에 쓰인 동사 ‘비추이다’이다. ‘비추이다’는 빛이 강력한 참여역할로 프로파일되는 동사이다. 그러나 ‘하늘’의 내용물은 모두 소리이미지의 것들이었다. 독자는 여기에서 소리이미지와 빛이미지를 동시에 연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 두 이미지를 적절히 조화하게 할 시적 정보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마지막 행의 시어는 다름 아닌 ‘라산스카’이다.

‘라산스카’는 그 뜻을 찾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논의한 시어이기도 하다. 김종삼 시인만의 암호라든가, 순수 언어의 결정체라든가 하는 풀이가 나왔다. 그만큼 이 시어가 뜻 모를 신비함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자는 이 시를 수수께끼처럼 인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 김종삼의 시에서 대체로 단형에 속하는 형태를 가진 시인데, 의미를 구축할 만한 연결고리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의미 없이 이미지만 형상화된 시라고 평가하는 것은 선부르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파헤치다’의 참여역할이 어느 정도 프로파일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라산스카’는 그 진의가 무엇이든 소리와 빛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 시어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소리와 빛에 의미를 채우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동시에 독자는 시를 되풀이하여 읽으면서, 동사가 프로파일하는 역할들의 구조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이 시의 형태적 규모에 비해 매우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의미의 여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다리 밑, 자갈밭은 말끔하게 곱히어졌고 흘러가는 몇 그루의 나무들이 사괴
이는 간격은 한 시름 놓이게 되는 微風의 사이엔 靈魂의 未納者들의 걸을 가는
날이 다시 저무러 가기 시작한.

- 「다리 밑 - 방 고희의 경지」 부분

아지 못할 灼泉의 소리. 의례히 오래 간다는, 물끓듯 끓어나는 나지막하여
가기 시작한.

- 「드뭇시」

아직은 原色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勞苦의 幻覺을 읽고난 다음.

- 「원색」 부분

머나먼 廣野의 한복판 앞은
하늘 밑으로
영롱한 날빛으로
하여금 따우에선

- 「물통」 부분

「라산스카」(수록2)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종삼의 시편에는 동사의
사용이 최소한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 많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아예 동사
를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있어야할 자리에 동사가 없다는 것은,
참여역할이 프로파일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같다. 혹은 시의 흐
름상, 독자는 이미 예상되는 참여역할을 프로파일할 예비를 하고 있는데, 정
작 동사를 생략함으로써 프로파일이 실제화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리 밑 - 방 고희의 경지」에서는 마지막에 배치된 시어 '시작한'이 서술
어의 형태가 아니라 관형어형으로 끝나고 있어서 다음에 올 수식의 대상이
의미적 여백이 되고 있다. 「드뭇시」에서도 같은 구조로 서술의 여백이 드러난
다. 특히 「드뭇시」는 '간다는'과 '시작한'에 의해 여백이 중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원색」과 「물통」에서는 서술이 되는 동사 자체를 생략함으로써 참여역

할의 프로파일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김종삼 시에 드러난 여백이 어떠한 인지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인지시학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독자의 입장에서 여백을 느끼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김종삼의 시를 읽을 때 주의 선택이 작품의 의미와 미적 특질을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주의 선택에 의한 전경과 배경, 프로파일링이 김종삼 시의 여백을 형성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북치는 소년』을 필두로 한 여러 시편의 경우에서 전경과 배경이 순환적으로 전복되고 있음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 순환적 전복으로 인해 ‘여백’이 형성되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목화』와 『리산스카』로 대표되는 몇 편의 경우에는 주어의 화제성과 동사에 관한 주의 선택이 프로파일링에 관여함을 분석했다. 아울러 독자가 예상하는 내용의 기대감이 획득되지 못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 동사의 의도적 생략이 그 동사에 대한 참여역할을 프로파일하지 못하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과정을 통해 김종삼 시의 여백이 형성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여백’은 그 빈자리에 의미를 채워 넣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의미부여에 앞서서 이글에서는 여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백은 의미를 채워 넣기를 바라는 장치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김종삼은 그 장치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김종삼을 평가하는 관점을 기존의 것과 달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김종삼을 단순히 절대적 순수의 미의식을 추구한 시인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이다. “여백의 미는 시인의 끊임없는 언어에 대한 애착을 전제로 하는 시창작의 근원적 체계”²⁵⁾인 만큼, 김종삼 시인은 결벽에 가까울

25) 손민달, 앞의 논문, 279쪽.

정도로 언어에 대해 천착했고 그 결과로 여백이 만연한 시편을 썼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들을 무의미에 가까운 이미지 위주의 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 즉, 김종삼 시인이 만들어 놓은 여백을 채우는, 의미에 대한 규명과 나아가 이를 통해 구현되는 김종삼 시인의 시 정신에 관한 연구는 후속 연구에서 계속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김종삼·권명옥 편, 『김종삼 전집』, 나남출판, 2005.

김종삼·장석주 편,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2. 논저

권명옥, 「적막의 미학」, 『한국문예비평연구』1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4.

김성조, 「김종삼 시의 ‘공백/생략’에 나타난 의미적 불확실성과 도피성」, 『한국언어문화』53, 한국언어문화학회, 2014.

김승희, 「김종삼 시의 전위성과 미니멀리즘 시학 연구」, 『비교한국학』16,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김영미, 「여백의 역설적 발언」, 『국제어문』57, 국제어문학회, 2013.

김정현, 「김종삼 시의 형상화 양상 연구」, 『국제어문』60, 국제어문학회, 2014.

김현, 「김종삼을 찾아서」,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류순태, 「김종삼 시에 나타난 현대미술의 영향 연구」, 『국어교육』125, 한국어교육학회, 2008.

문덕수, 「여백의 시학」, 『시문학』, 시문학사, 1995.6.

박민규, 「김종삼 시에 나타난 추상미술의 영향」, 『어문논집』59, 민족어문학회, 2009.

서영희, 「김종삼 시의 형식과 음악적 공간 연구」, 『어문론총』53,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

손민달, 「여백의 시학을 위하여」, 『한민족어문학』48, 한민족어문학회, 2006.

양병호, 『한국 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

양병호, 「이성선 시의 인지시학적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43,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4.

이경수, 「부정의 시학」,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이승훈, 「평화의 시학」, 『김종삼 전집』, 청하, 1988.

이정모 외 16인 공저, 『인지심리학』(3판), 학지사, 2012.

- 제라드 스티븐 · 조안나 개빈스 엮음, 양병호 · 김혜원 · 신현미 · 정유미 역, 『인지시학의 실제비평』, 한국문화사, 2014.
- 최명표, 「김중삼 시 연구」, 『한국언어문학』49, 한국언어문학회, 2002.
- 피터 스톡웰, 이정화 · 서소아 역, 『인지시학개론』, 한국문화사, 2009.
- 황동규, 「잔상의 미학」, 『김중삼 전집』, 청하, 1988.
- Elena Semino · Jonathan V. Culpeper(EDT), *Cognitive stylistics: Language and cognition in text analysis*, John Benjamins, 2002.

【국문초록】

이 글은 김종삼 시의 미적 특질 중 하나인 ‘여백’을 분석한 글이다. 시의 여백에 관한 의미 구축에 앞서서, 이 글에서는 김종삼 시에 드러난 여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인지시학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독자의 입장에서 여백을 느끼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김종삼의 시를 읽을 때, 주의 선택이 작품의 의미와 미적 특질을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즉, 주의 선택에 의한 전경과 배경, 프로파일링이 김종삼 시의 여백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북치는 소년」을 필두로 한 여러 시편의 경우에서 전경과 배경이 순환적으로 전복되고 있음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 순환적 전복으로 인해 ‘여백’이 형성되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목화」와 「라산스카」로 대표되는 몇 편의 경우에는 주어의 화제성과 동사에 관한 주의 선택이 프로파일링에 관여함을 분석했다. 아울러 독자가 예상하는 내용의 기대감이 획득되지 못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 동사의 의도적 생략이 그 동사에 대한 참여역할을 프로파일하지 못하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인지적 과정을 통해 김종삼 시의 여백이 형성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여백’은 그 빈자리에 의미를 채워 넣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여백은 의미를 채워 넣기를 바라는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종삼은 그 장치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종삼을 단순히 절대적 순수의 미의식을 추구한 시인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김종삼 시인은 결벽에 가까운 정도로 언어에 대해 천착했고 그 결과로 여백이 만연한 시편을 썼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시들을 무의미에 가까운 이미지 위주의 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주제어: 김종삼, 여백, 인지과정, 인지시학, 주의선택, 전경과 배경, 프로파일링, 북치는 소년, 목화, 라산스카, 독자

【Abstracts】

A Study on the formation of margins of Kim jong-sam's poetry in Cognitive Poetics

Shin Jee-one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f the article 'the margin', which is one of the aesthetic qualities of Kim jong-sam's poetry. Prior to mean building on the margins of Kim jong-sam's poetry, this article tried to explain that the margins are formed through any process revealed in Kim jong-sam's poetry. In particular, using the original methodology of Cognitive Poetics, and noted the process of feeling in the reader's perspective margin. When you read a poem of Kim jong-sam, attention selection is an important action to build on the meaning and aesthetic qualities of the work. In other words, a attention selection of figure and ground, profiling, forms the margins of Kim jong-sam's poetry.

Specifically, the analysis was that the figure and ground is a cyclical upturn in the case of "Little Drummer Boy". And due to the cyclic turnover "margin" it has been formed. In some cases, such as "The ink painting" and "Rasanska" it was also involved in analyzing the topic of subject and attention selection of verbs to profile. In addition, I looked at the course content that is beyond the expectations of readers. Moreover, by

intentionally omitting the company analyzed the structure does not act on the profile to join the verb. Through this cognitive process revealed a pattern that is formed margin.

We have to be filled with meaning in the 'margin'. In other words, the margin is to function as a desired device fill out the meaning. And Kim jong-sam is a poet with the device very effectively. So it is difficult to evaluate only poet merely as an aesthetic pursuit of absolutely pure Kim jong-sam. And his poetry is difficult to assess only the image-oriented poetry.

Key words: Kim jong-sam, Margin, Cognitive Process, Cognitive Poetics, Attention Selection, Figure and Ground, Profiling, Little Drummer Boy, The ink painting, Rasanska, Readers

이 논문은 2015년 10월 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0월 2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